



2013. 7+8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최소한의 삶’을 바라며

이달의 현장

한국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0주년

평화의 여정

한반도 평화체제를 세워야 - 정전 60주년을 맞으며

오늘의 여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단체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만 만나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곳에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름다운 창조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진·글 / 최 병 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 차



표지이야기

지난 7월 4일 홍콩YWCA '젊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YWCA를 방문한 홍콩Y 대학생들과 철원 DMZ를 다녀왔습니다. 평화는 돌로 나뉘는 너와 내가 하나 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04 이달의 생각 _ '최소한의 삶' 을 바라며 | 한영수
- 05 이달의 인물 _ 열정의 지도력 최이권 선생 | 차귀숙
- 06 이달의 현장 ❶ _ 한국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0주년
- 08 이달의 현장 ❷ _ 한국YWCA 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
- 10 이달의 현장 ❸ _ 모금은 친구 만드는 재미 | 윤수정
- 12 생명 씨앗 _ 제 3차 YWCA 생명포럼
- 14 생명 이야기 _ 내 몸은 누구인가! | 이윤숙
- 16 평화의 여정 _ 한반도 평화체제를 세워야 - 정전 60주년을 맞으며 | 한완상
- 18 감동이 있는 나눔 _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방원철 목사를 만나다
- 20 돌봄협동조합 _ 보육도 사회 전체가 맡아야 | 박영미
- 22 오늘의 여성 _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단체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 | 이은아
- 24 YWCA와 사회 _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세상 | 국민일보 6월 기사 모음
- 26 키다리 _ YWCA 동아시아 젊은 여성 평화포럼
- 28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_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 신 선
- 30 문화가 산책 _ 신간소개
- 31 월레아침기도회 _ 자족을 배우라 | 김기석
- 32 연합회 소식
- 34 회원YWCA 소식

‘최소한의 삶’을 바라며

글 | 한영수 (연합회 실행위원)

비가 안 오면 가뭄이요 너무 많이 오면 홍수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가뭄과 홍수를 일으킬 수는 없다. 이들의 피해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 자연 재해라고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재해가 하늘 뜻에 있다고 생각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성경에도 엘리야가 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심각한 재해라도 결국은 회복되어 사람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잘들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삶이다.

그러나 자연에 순응하기 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뽐내기라도 하려는 듯 사람들은 1800년대 중반부터 산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죽을 힘을 다해 그것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지구상의 에너지원으로는 태양에너지를 근본으로 만들어진 석탄, 가스, 석유 등이 있다. 이들 매장량은 향후 50~130년 사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기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조차도 향후 50년 안에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이 세대들이 다 써 버림으로서 더 이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는 것은 고사하고 그로 인해 지금보다도 더 극심한 가뭄, 폭염, 폭우,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물려주게 생겼다. 이것을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는 지난 100년간 섭씨 0.75도 상승한 것으로 그 피해는 굉장한 위력으로 자라고 있다. 섭씨 2도 이상 올라가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는데 21세

기 말까지 지금처럼 계속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섭씨 4도 정도 오를 것이라고 한다.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에 440기가 넘는다. 이들에게 스리마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이는 우리에게 자연재해를 넘어 인간재해가 되는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런 불상사의 결과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자손 대대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들이다. X선은 인공 돌연변이 유발물질로 사용되는데 유전자에 작용하여 자손 대대로 그 바뀐 형질을 대물림하게 된다. 또한 흉부X선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은 0.05, 흉부X선 CT 촬영 시 6.9밀리 시버트이다. 피폭량이 4000밀리 시버트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죽을 확률이 50퍼센트에 이른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많은 종류와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을 사고지역과 그 주변에 노출시킨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또 있을까.....

현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에너지를 아끼는 최소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YWCA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만들고 실천하고 있다. 또 각 회원YWCA들은 회원들과 생활 속 실천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절약의 지혜를 짜내어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긴 안목으로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이다. 



열정의 지도력 최이권 선생

글 | 차귀숙 (서울YWCA 회장)



전쟁 고아들에게 우유죽을 배급하는 최 선생

재건과 부흥의 씨를 뿌리다

최이권 선생은 1905년 5월 30일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나 개성 호수돈여고와 이화여전 문과를 졸업했다. 호수돈여고 시절 한국Y 최초의 하령회에 학생 대표로 참석하여 김활란, 신의경, 신희우 등 당시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Y가 뜻 깊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 최 선생은 당시 정식으로 발족된 학생Y에서 문학부장을 맡으면서 Y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일제시대 말기에 해체된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서울Y의 옛 이름)를 재건하기 위해 1946년 6월 열린 서울Y 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된 후 30여 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회장직을 맡으면서 최이권 선생의 지도력은 서울Y 안에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다녔다.


전쟁고아와 홀로 된 여성에게 희망과 위로를

한국전쟁 중 서울Y가 피난지 부산에서 벌인 우유죽 배급 활동은 당시 대표적인 구호 활동으로 꼽힌다. 최 선생은 2년 동안 매일 전쟁 고아를 위해 우유죽을 배급하였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공민학교를 개방하였다. 매월 여죄수를 방문하여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이군인 위문, 육군병원 방문, 반공 포로 수용소를 찾아가 빵과 옷을 보급하고... 전쟁은 수없이 많은 홀로 된 여성을 낳았다. 최 선생은 재봉클럽을 만들어 구호단체에서 받은 물건으로 제품을 만들도록 이끌었다. 6.25 전쟁 후 수복기에, 최이권 회장 당시 서울Y는 그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고 식구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곳, 배고픈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곳, 공민학교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전쟁고아와 가난한 어린이, 그리고 홀로 된 여성들에게 서울Y는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희망과 위로와 사랑을 주는 곳이었다.

한 발 앞서 사회 변화를 주도하다

최 선생의 활동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 초반까지 무궁무진하게 이어졌다. 1958년 6월 23일 기공식으로 시작된 서울Y 회관 신축은 국제친선향연 등 혼신을 다한 모금 활동으로 1959년 8월 회관을 건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복 후 설치된 Y-틴부를 시작으로 국제친선부, 사업부, 청년부, 성인교육부, 회우부, 보건체육부, 사회부 등의 부서가 신설되었고, 1961년부터 해마다 프로그램 중점을 정해 사회 변화에 대응했다. 최 선생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첫’ 기록을 남겼다. 1966년 12월 시간제 파출부 훈련을 실시하여 여성의 새로운 직업으로 만든 일, 1967년 3월 봉천동 사회봉사관을 개관하여 수재민 3천 세대에게 자활의 길을 열어준 일, 1968년 4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소비자운동을 시작한 일 등은 서울Y가 우리 사회에서 펼친 ‘첫’ 선구적인 사례로 꼽힌다. 근대화와 성평등이라는 시대 흐름을 읽고,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여성의 열망을 사회에 전하면서, 최 선생은 서울Y가 언제나 한 발 앞서 나아가도록 열정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사랑 반세기

최이권 선생이 회장으로 활동하던 30여 년 동안 서울Y는 눈부시게 도약하였다. 서울Y가 시작한 모든 사업은 우리 사회의 선구가 되고 모범이 되었다. 뛰어난 언변과 넘치는 창의력, 의지력과 과감한 결단력과 설득력, 공공선의 추구를 우선 가치로 여기는 자세,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Y의 날개를 안팎에서 크게 펼친 최이권,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서울Y가 나아가갈 길을 겸손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약한 부문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YWCA의 사명이다.” 

여성능력개발의 산실,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YWCA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특별사진전 오픈식이 7월 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0주년을 통해 본 여성의 일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0년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차경애 연합회 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2부 심포지엄에서는 명진숙 연합회 국장(운동국)의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차경애 회장의 주제발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0년 역사와 의미’, 정형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의 ‘변화되는 사회의 여성과 일’, 이내찬(한성대) 교수의 ‘OECD 국가의 삶의 질: 여성성평등지수와 여성의 사회활동과 고용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발제가 있었고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차경애 회장은 주제발제에서, 한국YWCA 직업훈련의 역사를 되짚어보았다.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한국YWCA 90년 역사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22년 창립 초기부터 한국Y는 여성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며 자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초창기부터 직업기술교육과 생활기술교육을 실시했다. 1925년 경성Y(서울Y 전신)가 기청양재여숙을 설립, 양재강습과 양복실습반을 개설해 처음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연합회는 최용신을 수원 샘골에 파견,

농촌주부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1932년 5월 농촌주부학교 ‘천곡학원’을 설립하고 18-40세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바느질, 요리법, 세탁법, 염색 등을 가르쳤다. 6·25전쟁 후에는 1951년 피난지 부산 동래에 ‘농예원’을 설립하고 양재, 타이프, 농예, 재봉, 축산, 원예, 수예, 편물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1960년대에는 소외된 빈민가정의 소녀와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1966년 서울Y가 ‘시간제 가정부’를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 지금의 가사돌보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70년대 이후부터는 근로여성과 일반 저소득층 여성,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직업기술 및 생활 기술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근로여성들의 저임금, 취업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새로운 직종개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76년 ‘여성의 새로운 직업- 직업훈련소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근로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Y의 다양한 직업훈련은 여성의 잠재된인력을 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1993년 Y가 노동부에 여성직업훈련기관 설립을 제안하여 서울, 광주, 부산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시작하였다. 2001년 5월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설립·운영규칙’(여성부훈령)이 제정되어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지금의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차 회장은 Y의 직업개발사업은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직업의식을 높이고 여성 권의

옹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 생애 주기에 따른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이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옥 연구위원은 ‘변화되는 사회의 여성과 일’을 주제로 여성의 노동 현실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 위원은 2000년 이후 한국 여성의 삶을 요약하여 교육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취업의지도 증가하였으나 육아부담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재까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 격차 또한 약 20% 이상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 및 육아시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에서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 위원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후처방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경력단절예방과 일·가정 양립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함을 말했다. 또한 50대 여성취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고령층 여성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돌봄 서비스 직종이다. 따라서 취업취약계층인 중·고령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취업알선서비스, 근로조건개선 사업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위원은 2013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전체의 40.5%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우리 사회는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이 본격화 되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문제는 여성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 위원은 사회서비스가 그동안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YWCA가 돌봄 노동 분야 일자리의 질 관리를 통해 모범적인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내찬 교수는 ‘OECD 국가의 삶의 질 : 여성성평등지수와 여성의 사회활동과 고용과의 관계’ 발제에서 OECD 회원국의 행복 구조를 분석한 행복지수를 통하여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의 경우 OECD

59.5%에 못 미치는 49.9%다. 이 교수는 남자가 여자의 가사를 거의 돕지 않고 여자는 임신하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관두는 것이 당연시되는 풍토를 저조한 취업률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를 위하여 직능 기술 교육, 근로 여건 개선 등 저조한 취직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경제력 유지를 위한 절대 노동력 부족 및 가족 붕괴 등을 고려하면 양성평등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고 하였다.

패널토론에서 고혜원 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여성의 취업지원 이후에도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여성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의 세분화, 고학력 여성들에게 적합한 지원,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국립여성사전시관 기획전시관에서 사진전 오픈식이 열렸다.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마련한 기획특별전에서 YWCA가 후원하고 ‘여성 직업의 변천사’를 주제로 한 패널에서 공동협력 전시를 한다. 이는 한국 여성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한국YWCA의 역사 중 여성직업훈련의 역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공식화한 의미를 담고 있다. YWCA는 여성 직업의 과거·현재 볼 수 있는 이번 사진전을 통하여 직업세계 변화를 통한 여성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는 10월 31일 까지이다.

2013년 현재 전국 52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중 27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YWCA는 오늘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에너지 절약은 지금, 여기, 나부터

한국YWCA '생명운동의 해'인 2013년, YWCA연합회와 회원YWCA는 '탈핵 실천 에너지 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하여 활동하고 있다. YWCA는 '탈핵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대전Y 에너지 절약 학교, 진주Y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아카데미, 한국YWCA연합회의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캠페인 현장을 소개한다.

현장 1 대전YWCA - 기후에너지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대전Y는 2010년부터 기후에너지 전문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79명의 기후에너지 전문지도자를 배출하였다. 2013년은 기후에너지 지도자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을 방문하여 연중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 네트워크인 민들레 모임을 가져 정보 공유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 100여개 학교 대상 24,600여명에게 에너지 절약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이신자 (대전Y 기후에너지 전문지도자)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다닌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다. 2009년 에너지 절약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후 곧바로 수업을 나가게 되었다. 에너지 절약 교육은 곧 기후변화 교육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골짜기에서 한 방 얻어맞은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놀랍게도 지구에서 얻는 것들이다>였다. 지구는 이 많은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해 우리는 이 혜택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인류는 지구에 온난화라는 결과를 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바뀌보았다. 멀티탭으로 콘센트를 교체하고, 조명도 LED로 바꾸었다. 가전 제품을 살 때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본다든지, 마냥 켜



대전Y 이신자 선생이 에너지 절약 수업을 하고 있다.

져있는 텔레비전을 끄기 시작하였다. 반드시 실천을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급식잔반을 줄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구 사랑법이라고 생각한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진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21세기 들어 꿀벌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꿀벌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식량문제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정말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즉,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인간도 위험해진다는 말이다. 꿀벌도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몫이 나를 비롯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삶을 위한 작은 노력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현장 2 진주YWCA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아카데미

진주Y는 2010년부터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아파트 주민 대상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을 펼쳐왔다. 매년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실천 축제를 만들었고, 캠페인, 에너지 절약교육, 전국 소등행사 참가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힘써 왔다. 하지만 점점 지역 내 활동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에 2013년 '에너지·기후변화 강사 아카데미'를 시작하였다. 기후변화 이야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에너지 절약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아카데미를 수료한 26명은 현장 교육 활동가로 나가며, 주민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진주Y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아카데미 수료식

김연정 (진주Y 에너지·기후변화 강사아카데미 수료자)

언제부터인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전해 듣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폭염과 폭설의 피해, 해마다 늘어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이제야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궁금증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을 때 쯤, 진주Y에서 에너지·기후변화 강사아카데미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가신청서를 썼다.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낭비만 줄여도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강사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몰디브와 투발루, 멸종위기의 북극곰들의 영상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저 궁금증 하나로 참가했던 이번교육이 끝나니 나만 알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견잡을 수 없이 파괴될 것이 자명한 지구! 많은 거창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습관화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좀 더 맑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미래를 위해 많은 이들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열병을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에너지·기후변화강사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현장 3 한국YWCA연합회 -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과 사진전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다. 바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이었다. 이날 캠페인은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과 동시에 대도시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전력 소비의 중심지인 서울과 경기도가 3.0%, 24.6%의 낮은 전력자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다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날 캠페인에서는 지금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이 시행되어야 함도 알렸다.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와 임원진은 돌아가면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에게 '초고압 송전탑 말고 다른 대안은 가능하다'라고 적힌 한 장짜리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다. 또 한 한국YWCA연합회 회관 로비에서는 특별한 사진전을 열었다. 장영식 사진작가가 밀양송전탑공사 강행에 저항하는 밀양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한국YWCA연합회는 밀양주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통해 명동 일대의 시민들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밀양땅을 지키기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처절하고도 가없는 울부짖음을 본 시민들은 이 사진전에서 쉽게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그리고 이 호소문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YWCA

모금은 친구 만드는 재미

글 | 윤수정 (연합회 회원Y협력지원팀 부장)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그들의 가치를 담은 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여 운동을 확대하고 함께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하는 모금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자본을 모으는 것이 아닌 Y운동에 함께 할 친구를 모으는 일에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연합회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한국YWCA 모금전략수립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고양, 부천, 성남, 안산, 파주YWCA와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 사업단이 전문 모금 컨설팅 업체 (주)도움과 나눔과 연계하여 워크숍을 하였다. 연합회와 회원Y는 다양한 방식의 모금사업 전략을 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금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1차 워크숍

“모금의 원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쉽고 일상적인 것이다.”

첫 번째 워크숍 전부터 회원Y 모금현황, 조직점검, 맥밀란 매트릭스를 활용한 사업점검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하는 모든 이사들과 실무자들이 각자 과제를 수행하여 우리 조직과 이사회, 사무총장의 모금역량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석 결과 워크숍에 참여하는 회원Y 이사회들이 건실하고 윤리성, 열정,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나 세밀한 개선(각 회원Y마다 다름)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회원Y에서 공론화하여 강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리고 맥밀란 매트릭스를 통하여 과감한 성장, 과감한 경쟁, 영혼의 영역, 과감한 포기를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는데 이 작업은 모금상품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분석 과정이다. 그리고 Dreaming작업을 통해 5년 동안 Y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5년 동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정하였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내부에 있는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이것을 극복할 전략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의논하고 수립해오는 것을 다음 과제로 받았다. 또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운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금액과 잠재기부자 수 등을 정리하는 기부 테이블을 작성해보았다. 1명의 기부자를 만들기 위해 3명의 잠재기부자가 필요하고 그 3명의 잠재기부자를 찾으려면 6배인 18명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탐색과 평가,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이렇듯 1명의 기부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18명의 가능성 있는 기부자를 찾아서 분석 및 평가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 워크숍

“모금이란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돈으로 부족한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권고하는 것이다.”

2차 워크숍을 위하여 Dreaming작업(꿈, 장애요소, 극복방법), 세부적인 사업분석, 기부테이블 및 잠재기부자 리스트 작성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 점검 결과 YWCA가


인지하고 있는 공통된 주요 장애요인은 내부적으로는 비전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 부족, 리더십의 모금 참여와 역량 부족, 자원·재정·인력·매력적인 사업 부족, 외부적으로는 다수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관 출현과 경쟁심화, 사업에 있어 Y만의 고유성·변별력·매력도 저하,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기부욕 저하를 장애요인으로 뽑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 1. 비전과 사업에 대한 내외부 평가 진행 2. 리더십 개발: 회장, 이사, 실무자의 역할 분담과 명기, 특히 모금에서 이사의 역할 비중 확대 3.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 마련 4.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 구상. 마지막으로 잠재기부자와 친해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Y는 모든 방법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고 대접하고 심지어 잠재기부자를 위한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러주겠다고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그만큼 잠재기부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3차 워크숍

“처음 기부하는 후원자들에게 물어봤다. 왜 지금까지 기부를 안했는지? 제일 많은 대답이... '요청받지 못해서' 이다.”

3차 워크숍 당일날에는 비가 많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일찍 서둘러서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의 실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3차 과제는 마지막인 만큼 실제 모금 실행을 위한 조직 내 역할분담, 모금을 위한 전화스크립트 작성, 1500명의 잠재기부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은 각 회원Y마다 자세하게 문서로 받아서 향후 보완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화 모금의 대상자가 다양하기에 다양한 그룹을 위한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잠재기부자 리스트 중에서 거액 잠재기부자 10명에 대하여 우리 조직과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기존에 기부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져서 상중하로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

각 거액 잠재기부자와 어떻게 친해져서 기부를 요청할지에 대한 방법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 연례모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금이 안되는 이유는 연례모금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1년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과 같이 모금도 10월이 되면 내년에 어떻게 모금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모금전담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5명이 역할을 나누어 하는 것보다 1명이 전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에 이사 중에 책임질 1명, 전담 직원 1명을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모금은 우리의 일을 같이 하자고 권하는 것이고 Y를 지지하는 세를 늘리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Y의 목적을 기초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운동을 계획하여 전개해야 하며 이에 함께 동참할 사람을 모으는 것, Y의 운동을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모금이다. 그러나 모금의 결과가 쉽게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첫날 이야기한 것처럼 모금은 즐겁게, 멀리있는 사람부터가 아닌 내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더 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지만 세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배우고 수립한 계획들을 실제로 전개함을 통해 회원Y들이 내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키울 수 있는 부분은 키울 것을 결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우리와 함께 할 친구들을 모으는 일에 두려움없이 도전해 나가리라 기대해본다. 워크숍을 진행한 이원규 부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내년에 진행되는 (주)도움과 나눔의 교육에서 모금성공사례를 발표할 회원Y가 나오기를 바란다. 

일상의 생명감수성, 놀기

제3차 YWCA 생명포럼이 7월 11일 문학의 집 서울에서 '일상의 생명감수성, 놀기'를 주제로 열렸다. 구미정 교수(생명비전 연구소운영위원, 송실대)의 '놀이와 생명' 주제강연 이후, 조혜영 강사(여성신문사 편집국장·이사, 문화감수성훈련 지도강사)가 소통과 나눔을 위한 놀이 '너에게로 가마, 나에게로 오라'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생명 애찬식, 생명 노래 함께 부르기, 생명세상 기원춤 엘름댄스 추기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기쁨을 통하여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고민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구미정 교수의 주제강연 '놀이와 생명' - '호모 루덴스'를 요약하여 싣는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면 스타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이 '기능'이 중요시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단순한 기능 말고 그 너머의 무엇, 즉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학명이 바로 '호모 루덴스' (Homo ludens)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이 용어는 네덜란드의 문화사가인 요한 하위징아 (1872-1945)가 1938년에 지은 책 제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문화,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이 호모 루덴스의 놀이에서 나왔다고 선언한다. 호모 루덴스는 '호모 파베르' (Homo faber, 노동하는 인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호모 파베르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세계에서 인류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된 인간상으로 노동이 숭양되는 사회에서 놀이는 인간을 가난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놀지도 쉬지도 않고, 더더구나 생각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생산과 효율의 가치에만 복무하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을 만



드는지, 하위징아의 경고는 매우 호되다.

다윗과 예수의 공통점

다윗과 예수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면, '왕'의 의미가 아닌 호모 루덴스의 전형이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치기 출신인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전쟁 영웅이자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예술을 탐닉하는 정열적인 호모 루덴스였다. 마찬가지로 1세기 갈릴리 지방을 무대로 고만고만한 열두 제자를 거느리고 유리걸식한 예수님께서 호모 루덴스를 본다. 어느 계층의 사람이든지 쉬어 어울리는 그의 얼굴에서 근엄함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떡보에 술꾼' (마 11:19; 눅 7:34)이라는 별명이야말로 그의 호모 루덴스적 면모를 입증하는 것 같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뻔히 알면서도, 배끓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호모 루덴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유연성과 호방함일 것이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여자와 어린이, 세리와 창녀가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지 않은 것도 그가 호모 루덴스이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다. 아마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호모 파베르의 효율적인 조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도리어 나무라시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입니다." (마 19:14; 막 10:14; 눅 18:16) 라고 말씀



생명 애찬식

하신다. 어린이야말로 놀이의 주체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어린이들의 놀이는 어딘가 기형적이다. 이미 규칙이 다 정해져 있는 게임기, 놀이를 주도해버리는 휴대폰, 실물과 똑같은 전쟁놀이·병원놀이·소꿉놀이 도구들, 먼·모 따위의 천연직물이나 돌·나무 등 자연소재보다는 견고한 금속과 차가운 플라스틱이 주를 이루는 장난감들... 아이를 주체로 만들기보다는 소비자로 만드는 놀이, 상상력보다는 효율적으로 규칙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놀이는 오히려 아이의 인격 성장에 방해가 된다. <1박 2일>이니 <무한도전>이니 <런닝맨>이니 하는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 있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놀이본능을 거세당한 호모 파베르의 욕망을 대리만족시켜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라도 놀이욕구를 달래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호모 파베르의 현실이 억압적이라는 뜻이다.

우린 '기독교' 스타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답을 주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호기심이 많은 것이다. 반면 답을 주는 사람은 이미 존재하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그 규칙을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 나는 우리들의 삶이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삶이기를 바란다.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려는 놀이정신으로 충만하여 여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대안적인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놀이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다. 놀이와 일이 서로 반대말이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하다. 놀이 따로, 일 따로, 그렇게



생명세상 기원춤 엘름댄스

분열적으로 살면, 놀이는 점점 음지화되고 일은 점점 무의미한 고역이 된다. 행복한 인생은 놀이와 일이 서로 통합된 삶이다. 놀이하듯 일하는 사람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노예노동이 아니라 일을 통해 몰입과 초월을 경험하기에 아무리 곤하여도 지지 않는다. 삶이 놀이요, 놀이가 삶인 사람, 말하자면 한 세상 사는 일을 '소풍놀이'에 비유한 천상병 시인 같은 이가 우리 시대의 희귀한 호모 루덴스라 하겠다. 놀이의 반대말은 진지함 또는 엄숙함이다. 그리고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립한 것도 진지한 엄숙주의자의 눈으로는 호모 루덴스의 행태가 너무 가벼워 보여서 그랬을 것이다. 한 집단이 지나치게 진지해지면, 거기서는 발랄한 창조 에너지가 짝들 수 없다. 약동하는 불굴의 생명 에너지는 호모 루덴스의 놀이정신에서 나오는 법이다.

나는 놀이의 초월적 특징에 주목한다. 놀이에는 무한한 상상력에 기대어 현존질서를 뒤집어엎는 비판적·해체적 특징이 있다. 놀이공간은 반칙이나 편법이 통하지 않는 초월공간이다. 모두가 공평하게 순서와 역할을 맡고, 공정하게 규칙과 벌칙을 적용받는다.

노는 게 가장 좋다. 일하는 것, 쉬는 것, 노는 것, 이 세 가지는 인생에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노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른의 지혜와 어린이의 천진함으로 가득하면 좋겠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 각자가 교회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기독교' 스타일을 드러내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정리 : 편집실) 

내 몸은 누구인가!

글 | 이윤숙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비너스의 탄생〉(1484), 보티첼리

비포 애프터

언젠가 강남에서 지하철을 타다가 본 한 광고가 지금도 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뭐 이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어디서나 흔해 터진 광고가 성형외과 광고라 Before After 식의 성형 전후 사진은 별로 주목을 끌지도 않지만, 적어도 이 광고만큼은 달랐다. Before-핑크빛 바탕에 아주 조그만 다이가 박힌 결혼반지, After-갑자기 획기적으로 커진 다이아 결혼반지! 일견 판에 박힌 성형외과 광고 사이에서 기발함과 센스가 돋보이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씁쓸함이 더해지는 광고였다. 그것에 담겨있는 노골적인 욕망, 사랑과 결혼을 둘러싼 적나라한 물질주의가 젊은 여성들을 부추기고 끌어내고 있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내는 불편한 메시지들.

아, 정말이지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성형수술 국가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통계수치에도 잘 나타난다. 얼마 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인구 대비 성형수술 횟수에서 세계 1위이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국성형시장 규모는 45억달러(5조원)으로, 세계 성형 시장 규모인 200억 달러의 4분의 1이라고 한다. 이미 외국에선 한국소녀 절반 이상이 성형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다. 하긴 버스에 탄 초등학생들이 “난 김태

희 닥게 성형할래, 아냐 소녀시대 윤아가 더 나아”라는 식으로 재잘대는 게 낯설 것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눈코입에 칼을 대고 턱뼈를 깎아내고 몸 여기저기에 보형물을 집어넣는 등의 이 몸에 대한 대공사는 마치 산을 깎고 강을 막고 바다를 메우는 식의 자연에 대한 ‘개발’과 닮아있다. 지금의 성형붐은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파괴와 같은 모습이다. 그것은 자연-몸-여성을 한쪽에, 문명-이성-남성을 또 한쪽에 놓고 자연과 여성, 몸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구적 세계관의 표현이다. 나의 삶과 영혼이 깃든 내 ‘몸’은 계속 깎여나가고 파헤쳐지는 자연처럼 어느새 어떤 목적에 맞게 수정되고 변형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몸에 대한 불만과 불안들

대중문화를 통해 쏟아지는 무수한 메시지들은 S라인과 식스팩을 가지도록, 이 시대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당신의 몸을 개조하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 그렇다. 이 시대에 취직해서 먹고 살려면 외모와 몸매가 매우 중요하다. 그뿐인가, 여자가 웬만큼 만족한 결혼을 하려면 ‘되는 외모’와 ‘잘 빠진 몸매’는 필수다. 그래서 이제 비만은 전염병이요 저주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몸이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죽도록 다이

어를 하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몸을 만든다. 더군다나 그럼 몸은 ‘착한 몸매’ ‘바른 몸매’ 라는 도덕적 가치까지 전유하며 후기자본주의를 살아갈 엄청난 스펙이 된다. 반면 그런 ‘착한 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 즉 몸을 개조하고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찌질하며 낙오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곤란과 불안, 우울한 정서에 사로잡혀 버리고 자기 몸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나날이 커져 버린다. 먹는 것에 대한 불안, 굶는 다이어트의 반복, 거식증과 폭식, 운동 중독 등은 이제 남의 나라 일도 아니고 희한한 일도 아니다.

사실 이것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외모중심주의 국가요, 세계 제일의 성형국가인 대한민국에 국한된 일이 아닌 전세계적 양상이다. 외모와 몸매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는 그래서 더 막강하고 집요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란 도무지 쉽지가 않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유행하는 ‘리얼뷰티 변신’ 프로그램, 스타일 개조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의 미용과 성형 기술, 패션과 화장들은 욕망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확장시킨다.


이 몸 프로젝트, 몸에 대한 불만을 상기시키고 몸에 대한 개조와 관리를 부추기는 새로운 ‘몸 가치’는, 수많은 다이어트 산업들과 성형 의료, 미용과 패션 산업의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자본의 멋진 시장을 만들어 준다. 대체 우리들은 언제까지 몸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신체변형의 문화적 압박을 느끼며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 만족스럽지 못한 몸을 개조하기 위해 이 거대한 자본시장에서 돈을 쓰고 죽도록 애를 써야 할까.

내 몸과 화해하기 위하여

언젠가 어느 잡지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난다. 날씬하고 구릿빛의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어했던 한 서구여성이 네 팔의 오지로 자원봉사를 갔는데, 네 팔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소리쳤다. “너 정말 뚱뚱하고 하얗구나!” 그녀는 맨

처음 너무 화가 났지만 곧 그것은 네팔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걸 알았다. 네팔에서는 뚱뚱하고 하얀 모습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난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몸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트와 미용에 대한 노력들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거식증으로 고통스러워했던 다이애너 영국왕세자비의 심리치료를했던 수잔 오바크는 그녀의 저서『몸에 갇힌 사람들』에서 “우리는 몸을 당연한 것이자 즐거운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몸에 새로운 육체성을 부여함으로써, 몸을 달성해야 할 열망이 아니라 우리가 깃들여 사는 장소로 바꿔야 한다. 몸에 대한 상업적 착취와 신체적 다양성의 격감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와 아이들이 자식의 몸, 취향, 신체적 특징, 섹슈얼리티를 즐기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름다운 외모, 멋진 몸을 가져야 살 수 있다는 이 시대의 사회적이고도 문화적 압박을 아무리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해도, 사실 이 집요한 권유와 압박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아름답고 멋있어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보편적 욕망이기 때문이며 또 후기 자본주의의 글로벌 경제에 참여해야 하고 신체가 경쟁시대를 살아갈 스펙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몸의 구체적 모습이 획일적이고, 사람들 사이를 구획하며 불안과 불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멈춰 서서 어느새 전쟁터가 되어 버린 내 몸에 대한 압박, 몸에 대한 불안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내 몸은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는 다양한 몸인가. 내 몸은 나만의 고유한 경험과 정서와 영혼이 깃든 몸으로써 존중받는 몸인가. 나는 내 몸을 사랑하는가. 내 몸은 누구인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세워야 -정전 60주년을 맞으며-

글 | **한완상** (전 부총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끈질기게 저항하는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참전하게 됨에 따라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다. 태평양전쟁은 이렇게 종식되었다. 전쟁의 종식으로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우리민족에게는 아픈 고통, 더 억울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범국의 반인륜적 범죄는 국제적으로 응징받아 그 전에 부당하게 탈취하였던 남의 나라 영토는 원래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전범국이 받아야 할 징벌을 전범국의 식민지였던 우리민족이 받게 되었다. 그 결과가 미국과 소련의 성급한 대응으로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두 쪽이 난 것이다.

고려 이후 천 년간 같은 나라로 살아왔던 우리민족이 부당하게 전범국이 받아야 징벌을 받고 분단되었다. 분단되면서 우리는 이질적 강대국의 이념적, 군사적 대리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남북간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나는 민족 고통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정치사회적 메커니즘 하나를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바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현실이다. 남북간에 적대적 공생관계가 작동하게 되면, 남북간 체제 안에서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남북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보겠다. 우선 남과 북은 서로를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적대체제의 대리자로서 서로를 이념적으로 주적으로 낙인찍었다.

또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아방(我方)을 선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저주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남과 북의 권력 주체는 각기 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상대방이 강력하게 존재해야만 자기 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 있기에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호전적 정책과 행동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필요로 하는 권력 주체는 필연적으로 강경 호전세력과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훼손시키는 반민주세력이 된다.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평화적 성격을 가진다.

이같은 특징들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비극은 남북관계의 악화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거의 필연적으로 대내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인권을 훼손시키는 후진적 정치로 이어졌다. 1987년 우리 국민은 6월 시민혁명으로 군사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 낼 수 있었으나, 대통령직선제 전 11월 말 대한항공 폭파사건은 강력한 북풍태풍을 몰고 왔고, 이 사건으로 민주 정부의 탄생은 지연되고 말았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군사권위주의기가 시민혁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큼 유효했고, 그만큼 적대적 공생관계는 어김없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최근 남북정상간 대화록을 발췌·왜곡시켜 전격 발표한 집권당의 행태 또한 이같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재생산하려는 비민주적 세력의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필자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대내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어 내는 새로운 정치지도력이 한반도 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 각 체제 안에 현실 합리적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정치공간(넓은 의미에서)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것은 곧 자율적 시민 세력의 정치공간의 확대이기도 한다. 북의 경우 핵문제를 뛰어넘어 주민의 경제고통을 제거해 주는 정책과 정치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최소 쌀밥에 고기 국을 때때로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현실을 과감히 개혁해 내는 지도력이 요청된다. 이 요청에 남쪽이 적극 호응해야 하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이 요청에 합리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호응 속에서 지금의 정전체제가 적어도 한국전 당사자 네 나라들이 책임있게 극복해 내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함께 제시하고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카이로스의 해 2013년, 정전 60주년

올해가 우리 민족에게는 카이로스의 기회의 해이다. 첫째 우리민족은 분단 이후 6.25를 거치며 오늘날까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민족끼리 전쟁상태에서 묶여 대결하고 있다. 이제 63년을 지속시킨 이 전쟁의 그림자, 이 민족간 전쟁은 끝날 때가 되었다. 더구나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 대결은 일단 1989년 말에 끝이 났다. 어제의 주적 소련은 이제 러시아로 변화되어 우리의 우방이 되었고 중공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 60주년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은 일종의 민족적 수치이다. 어떻게든 극복되어야 한다.

정전 60주년이 의미하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올해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긴 63년의 전쟁을 끝내는 해, 새 역사의 때(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다)가 바로 2013년 올해다. 최근 NLL 발언록 폭로에 따른 집권당의 시대착오적 냉전인식을 확인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올해 정전 60주년을 더욱 뜻깊게 보내야 한다. 민주 시민세력과 정치세력이 힘을 합하여 60년 된 정전협정

체제를 청산하는 운동, 곧 평화운동과 민주운동을 새롭게 펼쳐야 한다. 이것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과 국민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과 해방의 꿈을 기어코 올해부터 실현해야 한다는 역사인식이요 소명감이기도 하다. 분단 체제하에 전쟁 지속 상태가 계속되는 한 우리민족에게 참된 민족 광복과 총체적 해방은 불가하다는 인식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60년 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참여한 세 나라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남한 당국자들 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올해 안에 6자 회담을 안에서나 밖에서 만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여평화구축에 필요한 잠재력을 키워나가길 기대한다.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간 합의를 오늘의 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며 특히 10.4공동선언이 갖는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에게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 진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론 미국과 중국과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일차적으로 바로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에 남과 북이 먼저 대화와 협상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런 민족자주의 입장을 북에게 주장하면 신뢰는 더욱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민족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놓쳐버린 광복의 기쁨을 이제 남북 공동으로 누릴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남과 북이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참으로 자랑스런 성취를 함께 일궈내게 될 것이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방원철 목사를 만나다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성광감리교회(담임목사 방원철)는 주변 지역의 건물과 잘 어울리는 소박하고 포근한 예배당 건물만큼, 지역 사회 속에서 변화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과 예배 또한 아름답다. 다양한 지역 봉사와 선교 활동 중에서도,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운동 협력교회로서 매일 정기 후원 참여와 함께, 지난 6월에는 700여만 원 특별 후원에 참여해주었다. 성광교회는 6.25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다 순교하거나 납북된 목회자들의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모자원을 모체로 한 교회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와 함께 북한어린이를 위한 분유보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광교회가 YWCA 북한어린이돕기에 참여하는

신학적·성서적 배경은 무엇인지요?

에스겔 37장 15~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둘로 나누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남북한의 통일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멀지 않은 장래에 도적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실천가능한 일부부터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YWCA 북한어린이돕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어린이돕기 사역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요?

2012년 5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참여하며 모금뿐만 아니라 북한어린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분유를 보내는 영적입양 운동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매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통일코리아를 세우는 100일 기도’의 저자인 오테레사 전 목사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하고 한 달 간은 북한을 위한 집중적인 중보기도와 선교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속한 지역(마포), 한국(남한), 북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사역을 위해 기도와 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눔의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진행되었고 또 계획 중인지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기학교입니다. 0~3세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기의 첫 사회생활을 도우며,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둘째는 지역을 위한 카페운영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액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섬김’입니다. 성광교회의 모든 속회(소그룹)는 이 지역의 독거노인, 홀부모자녀, 지역의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1주일에 한 번씩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북한어린이 영적입양운동을 펼치는 성광감리교회 (2012)

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 읽었던 글이 제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소개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들은 교회의 목표가 건물을 크게 짓고 신도를 늘리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자기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런 교회 운동을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5:13~16)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성광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요?

성광교회는 6.25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다 순교하거나 납북된 목회자들의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모자원을 모체로 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작년에 성광교회 창립 55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교회의 역사를 재정리하면서 우리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교’, ‘선교’, ‘사랑’, ‘교육’ 그리고 ‘기도’입니다. 순교자들의 희생을 토양으로 삼아, 세상과 열방에 선교하고 사랑을 베풀며, 우리의 믿음이 세대를 넘어 흘



성광감리교회 어머니 기도회 날 북한어린이 돕기 부스 마련 (2012)

리라도록 다음세대를 교육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청지기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구원의 다리로 섬겨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광교회는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YWCA는 1996년부터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평안남도 안주의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보내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북한어린이돕기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개인, 교회, 기관 등)은 매달 월간과 한국YWCA 홈페이지에 소개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 방법 ♥

정기기부

CMS 신청

- 한국YWCA 홈페이지 북한어린이돕기 ‘후원하기’ (후원참여하기-정지기부에서 신청)
- 또는 CMS 신청서 사업단에 제출

일시기부(기쁨기부 등)

- 계좌입금 : **농협 386-17-000052** (예금주 : 한국YWCA연합회)
- 북한어린이돕기 우유팩 모금통 (문의)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T : 02-774-9705

보육도 사회 전체가 맡아야

YWCA 보육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글 | 박영미 (제천YWCA 사무총장)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1.22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에 해당한다. 저출산은 청년인구가 줄어들어서 사회를 노령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감소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폐해를 낳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현재,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해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국공립 양육시설이나 보육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특히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조손가정이 많은 농촌의 경우, 돌봐주는 보호자 한 명 없이 아이 혼자 하루 종일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3년 현재, 생명보험사들이 출자해 탄생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보육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공모, 제천Y를 비롯한 동해Y, 파주Y, 하남Y 등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YWCA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은 만1세(일반3세)부터 만5세(일반 7세)의 영유아 및 해당아동의 형제(일반 10세 이하)를 위해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적 돌봄과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천Y는 제천시 화산동(제천에서 취약지역) 42명의 아동과 덕산면 (농산촌지역, 제천 시내에서 약 1시간의 거리) 38명의 아동들을 보살피고 있다. 농촌에서의 농번기는 보통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 이때 아이들은 도시의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방치된 생활을 하게 된다. 제천지역 역시 농산촌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들 또는 딸의 부부가 자녀를 조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는 조손가정형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Y가 이 사업에 참여해 온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을 모집하기 힘들거나 보육교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점 등 생각하지 못한 여러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들에게 작지만 포근한 가정 같은 분위기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많은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 참여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어느덧 단기간에 해치우는 사업이 아니고, Y가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하며 지원해야 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일시적 사업으로 단기간 지원하고 끝을 낸다면, 또다시 보육 사각지대는 늘 우리의 현실을 암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제천Y 새싹아동돌봄센터의 아이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 우리 모두 공동체의식 회복할 때


더 나아가 보육은 나와 너,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책임이다.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의 존립이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이제는 일부 아동에게만 제한되어있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육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이 개별가정에서 국가사회 책임의 공공보육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보육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나아가 보육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중장년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여성고용확대 정책의 요구도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돌봄의 사회화에 따른 돌봄 여성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제천Y를 비롯한 동해Y, 파주Y, 하남Y 등은 이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지원을 계기로 그야말로 꿈을 꾸게 되었다. 즉 필요한 보육서비스에 대해 정부나 민간 모두 예산 부족이나 시장성 미흡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면, 대안경제 조직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영역의 상호호혜의 가치 실현, 즉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같은 기업과 공익재단이 다양한 기부를 실현하고, YWCA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노하우와 자원활동이 결합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하게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소유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호 이익적인 호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보육문제 해결은 당위적 차원에서는 정부 등이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한발짝 더 나아가 보육문제만큼은 누군가에게 떠맡기는 일이 아니라, 한 마을이 한 아이를 돌본다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보다 가치있는 돌봄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2013년 현재 제천YWCA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대안 경제 조직에서 찾는 중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단체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

글 | 이은아 (이화여대 교양교육원 부교수)



경기지역 YWCA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국가와 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 혹은 남성과 별로 관련이 없을까? 즉, 정책은 성(性) 중립적인가? 언뜻 보면 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과 무관하거나 혹은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사업 또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지역 주민이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차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이를 지닌 젠더이기 때문에 정책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젠더 관계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보자. 지하철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예전에 만들어진 지하철 손잡이는 평균 키 170cm를 기준으로 하였다. 170cm는 누구의 평균키일까? 모든 국민이 아닌 ‘성인 남성’의 평균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지하철에는 170cm와 160cm 정도의 평균키를 고려하여 손잡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다양한 주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성인’ ‘남성’ ‘비장애’ 등의 중심이 전체를 대표하게 되고 주변화된 집단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배제되거나 간과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국가로부터 성별에 따라 1과 2(혹은 3과 4)로 구분되는 주민번호를 부여 받는 것처럼, 성별은 우리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새롭게 태어난 아기의 성별이 궁금한 이유도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규범, 태도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다면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만 정책이나 사업도 보다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형평성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국제사회는 여성의 낮은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발전을 강조해왔으나 단지 여성이 발전한다고 해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으로부터 ‘성 주류화’ 전략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엔은 1990년대 중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재생산하고 구조화하는 정책과 사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접근을 채택하였다. 성 주류화란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링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후반 성평등 사회를 위하여 ‘성 주류화’ 전략을 채택하고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책의 성 분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몰성적’ 정책을 성평등에 기여하는 ‘성인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는 2004년 시범 실시된 이후 2005년 본격 시행되었다. 2005년 지자체 연구기관에 있었던 필자는 당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은 ‘내 사업은 성별과 무관할 뿐 아니라 여성 혹은 남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성차별일 수 있다’거나 ‘다른 많은 사업들 중에 왜 꼭 내 사업이어야 하는가’, 또는 ‘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동 제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저항이 많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2006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자체로 확대되고, 매년 과제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동시에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지 교육이 확대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되고 사업 뿐 아니라 법과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의무화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본래 제도가 추구하고자 했던 성인지 정책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이루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갖는 딜레마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무엇이 ‘성평등’인가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비워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성평등인가의 방향과 내용을 채우는 역할은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성평등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무엇이 성평등인가는 각 사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각 주체마다 요구하는 성평등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성평등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반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무엇보다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정부 및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거버넌스가 등장하고, 제3섹터(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즉, 정부 중심의 정책접근과 달리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과 참여를 통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거버넌스

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히 중요한데, 거버넌스를 통해 무엇이 성평등인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또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같은 제도라도 운영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과연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올해 경기지역 YWCA가 함께 진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사업은 반갑고 의미가 깊다. 경기도는 신도시부터 도농복합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차이가 커서 12개 지역 YWCA 지부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은 물론, 성평등한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동 사업의 모니터링은 정책개선 제도 운영과 정책 개선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지역간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모니터링의 의미는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선에 있지만 더 나아가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여성주의 의식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뿐 아니라 일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이 정책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인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동등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보는 방식은 그러한 현상을 평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한다’는 어느 여성연구자의 말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은 여성의 관점에서 제도를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것은 분명하다.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세상

한국YWCA 연합회는 매주 목요일 국민일보 32면에 YWCA 운동 정신과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6월에는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세상' 을 주제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정리: 편집실)

여성정책 성 주류화 전략

6월 6일

성별영향평가 · 성인지예산제도 등
2000년 이후 법제화 각종 정책 반영
“잘못 적용 땐 되레 성불평등 강화”
여성가족부와 공동 지속적 모니터링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를 도입 · 시행하고 있다. 성 주류화는 모든 정부 부처와 조직들이 정책의 성불평등 문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도구가 정책과 예산이 성불평등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 에서 분석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이다. 국내에서 성 주류화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도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9년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201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 주류화 도구들은 성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시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성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YWCA 경기지역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성 주류화 전략에서 간과되고 있는 성평등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과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Y가 만나는 세상 / 경기지역 Y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2013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실현되는 데에는 '예산' 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 속에 숨겨져 있던 성별 차이를 강화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것이 성인지정책의 또다른 목표이다. 경기 지역 12개 Y에서는 시에서 실시되는 사업이나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자체별로 여성친화적인 행정이 되도록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 가운데 여성주의 의식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돌봄노동자의 법적 권리 찾기

6월 13일

간병 · 육아 등 쉽지 않은 육체노동 불구
'비생산적 근로' 로 분류, 상대적 차별
대부분 여성... 임금 등 법적보호 시급

한국Y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돌봄노동 종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제 돌봄서비스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2011년 6월 UN의 공식기구인 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189호)이 채택된 것이라 할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것이다.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돌봄노동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과중한 노동, 사회보험 미가입 등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보편적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동시에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Y의 돌봄서비스 경험으로부터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더 나은 처우의 제공이 돌봄노동 종사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될 것이다.

Y가 만나는 세상 / YWCA 돌봄 서비스 주도

돌봄서비스 분야에서의 한국Y는 독보적이다. 1966년 국내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 를 직종으로 개발한 이래 1975년에는 건강돌보미를, 1988년에는 산모돌보미에 이어 아기돌보미 개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시장을 주도해 왔다. 지난 40여년 동안 Y를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돌보미는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3년 현재 한국Y는 돌봄협동조합을 연구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정의의 사회를 이루는 방안의 하나로 협동조합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의 지혜로 평화 만들기

6월 20일

'평화 · 안보 관련 정책수립에 여성 참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명시
여성도 평화구축자로 능력 필수 있어야

2000년 UN의 안보리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안 1325호는 여성을 분쟁의 희생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해결자로서 인식하고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 결정 및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명문화한 것이다. 안보리는 이후 이를 지원하는 4개 후속 결의안을 추가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분쟁 상황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평화, 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역할을 강화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 결의안들은 의사 결정에 여성의 참여 강화, 성폭력과 불치별 종식, 책임 제도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UN은 국가 수준의 1325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거나 다른 전략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국의 1325 국가행동계획은 한반도 내외에 상존하는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우리의 생존의 조건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 예방 및 평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여성들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어 내는 평화조성자, 평화구축자로서 자신들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Y가 만나는 세상 / 세계Y, 2011년 대북 '인권 결의문' 5개항 채택

세계Y는 2011년 YWCA 세계대회에서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 특히 어린이와 여성에 대해 평화의 호소를 세계대회 결의문으로 정식 채택함으로써 전세계 108개 회원국 모두가 4년간 실행할 전략과 실천 과제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세계 회원국 모두가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국Y의 평화프로그램을 통해 정의와 평화가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젊은 여성이 함께 평화를 꿈꾸다

홍콩YWCA '제4회 젊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 Women Voice'의 일환으로 홍콩Y 젊은 여성들이 한국Y를 방문하였다. 7월 2일부터 5일까지 'YWCA 동아시아 젊은 여성 평화포럼'이란 주제로 열린 4박 5일간의 일정 동안 한국Y와 홍콩Y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콩Y 참가자 36명은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봉천복지관을 방문하였으며, 신혜수 부의장(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강의, 정경란 대표(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남윤인순 국회의원(민주당)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은 한국Y의 대학Y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넷째 날에는 DMZ와 국경선평화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의 상황과 평화정신을 공유하였다.

Tammy, So Yim Fong (홍콩YWCA 여성개발부 부장)



젊은 여성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인 'Women Voice'는 홍콩Y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세계YWCA의 젊은 여성 역량강화와 리더십 함양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 프로젝트는 2003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3년 단위로 진행된다. 지난 3회기의 운영을 통하여 250명의 젊은 여성 리더를 훈련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7-25세의 여대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성별 의식(gender awareness)과 잠재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련의 훈련, 외부 방문,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4회 'Women Voice'는 2012-13까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여성과 건강', '여성과 가정',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폭력', '여성과 사회참여'라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조사를 마친 이후에 참가자들은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먼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자매YWCA를 조사하였다. 그러면서 2011년 취리히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한국Y를 만났던 경험을 떠올렸다. 이사와 젊은 여성들의 열정, 평화구축을 위해 일하는 그들의 열심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 11월 한국Y에 방문요청 이메일을 보냈고 곧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거의 반년에 걸쳐 한국Y와 이메일을 통해 생각을 교환하였다. 우리는 한국Y 실무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주었고 사전에 필요한 예약과 일정 조율을 해주었다. 마침내 모든 세부 사항들이 지난 6월에 확정되었다. 한국 방문 동안 우리 대표단 36명 모두는 한국Y에서 매우 값진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한국YWCA연합회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한국Y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한국Y 이사들, 젊은 여성과의 즐거운 대화와 교류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서울Y 봉천복지관, 국회, 이화여자대학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방문과 여성 리더들의 감동을 주는 연설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DMZ와 국경선평화학교 방문은 평화 건설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켜주었고 한국에서 여성의 현실과 여성 지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한국Y 방문이 우리 홍콩 젊은 여성 리더들이 나아갈 방향 제시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철원DMZ 월정리 역에서

Yuki, Chan Man Fungi (홍콩Y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나는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 내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다. 과거에 나는 '세계 평화'가 나하고 관련된 일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평화의 씨앗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다면, 세계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또한, 나는 한국 여성 리더들의 열정과 결단력에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거는 사회의 기대들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나의 경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꿈의 실현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 꿈이 단지 꿈으로만 남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YWCA의 젊은 리더다!

유은경 (인천Y 대학Y 회원)



한국Y에 홍콩Y 대학생들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 우리와 다르나 비슷할 것 같은 우리 또래 홍콩 대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 궁금했다. 7월 2일 인천Y 대학생들과 함께 'YWCA 동아시아 여성 평화포럼'에 참여하여 '젊은 여성들이 만드는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바로 우리들이 평화를 만드는 세계의 리더이자 주인공이라는 것을 느꼈다. 홍콩Y 학생들과 모둠별로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연예인, 한국말, 대학생이라는 현실, 전공, 꿈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전공을 가졌다는 이유로 좋아하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들으니 친근감이 느껴졌다. 나라는 다르지만 여자, 학생, 꿈 등의 관심사로 다 한 마음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7월 4일에는 홍콩Y 친구들과 함께 DMZ를 방문하기 위해 철원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국경선 평화학교 정지석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 어려워보이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믿는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철원평화 전망대에 올라 DMZ 지역을 볼 수 있었다. 지금 내 눈으로 본 이 현실은 어느 할머니의 아픔이 아닌 나의 아픔이었다. 돌아가는 길, Fiona라는 친구가 남한과 북한이 같은 나라인데 서로 만날 수 없고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하였다. 그렇게 함께 가슴으로 아파해주는 Fiona가 참으로 고맙게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들은 분단의 현실을 함께 마주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판야오(친구)가 되었다. DMZ 방문을 통해 분단국가의 현실을 마주하였다. 또한 정지석 목사님처럼 평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분단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며 기도해줄 좋은 친구들이 생겼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글 | 신 선 (연합회 영성팀, 홍보출판팀 위원)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제 10차 총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는 반갑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전해진지 4년여 만인,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라는 주제 아래, 총대 825명과 교회대표 등 6,000여명이 참석하여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WCC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기회에 한국 YWCA가 준비위원으로, 방청대표로, 마당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전국의 Y회원들이 WCC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또 부분적으로 떠오르는 오해들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WCC 총회와 관련한 개괄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참고: www.wcc2013.kr)

WCC란 무엇인가?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WCC 헌장 제1조) 라고 고백하는 WCC는 전 세계 110개국에서 349개 교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협력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로, 전 세계 5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에큐메니칼 기구와 정교회, 성공회, 개혁신교, 침례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연합교회, 오순절교회가 회원교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가 가입되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정식회원은 아니지만, WCC의 중요 축인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 정식회원으로 참여한다. 본부 사무실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CC는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일치될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인 기구이다. 에큐메니칼(Ecumenical)은 헬라어로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말은 ‘만물이 살고 있는 온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이쿠메네는 신약성경(사도행전 15장)에도 등장한다. WCC는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채택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하나의 일치된 신조로 인정하고 회원교회는 교회론과 치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수용하여 다른 교회에게도 부과하신 주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거룩한 교제를 하자는 뜻을 가진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요17:21)를 추구하는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삶과 봉사’(Life and Work), ‘국제 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등, 3대 목표로 다양성 속에 일치를 통해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나라를 구현(엡 1:10, 골 1:15-21)하려는 운동, “하나”(One)의 “거룩”(Holy)하고, “공교회적”(Catholic), “사도적”(Apostolic) 전통을 지닌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다.

WCC 제10차 부산 총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10차 부산 총회는 아시아권에서 뉴델리(제3차 총회)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총회이다. 한반도의 부산이라는 장소에서 경제적, 생태적, 영적위기를 겪고 있는 21세기의 당면과제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충만한 문명을 향해 복음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총회로, 변화하는 시대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할 선교적 사명을 공유하고 세계교회들이 새롭게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의 지평을 열어 나가려는 여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매 7년마다 개최하는 총회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 개회 예배, 매일 아침예배, 성경공부, 정오기도회, 매일 마감기도회와 폐회예배로 이어지고, 특히 총회 장소가 한국인 점을 감안해서 수요일예배를 드리게 되고, 새벽기도회, 통성기도를 도입하여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라는 우리말을 총회에서 공식용어로 사용한다. 총회에서의 회무는 의장단과 15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지난 7년간 세계교회가 지향하였던 다양한 신학적 과제를 협의하여 정책문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경제’, ‘정의로운 평화로의 에큐메니칼 부름’에 대해 검토하고 실질적인 WCC의 정책으로 수립하는 논의를 가진다. 축하와 나눔의 축제로 한국의 “마당”개념을 도입하는 워크숍이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한국Y도 적극 참여한다.

한국교회는 더 큰 약속의 무지개를 보아야한다

한국교회는 WCC 창립총회 때 이미 회원으로 가입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 난무하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오해들이 있다. 가령, WCC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 ‘용공단체다’, ‘신자유주의 신학이다’, ‘WCC에 이슬람과 불교가 가입되어 있다’, ‘사회선교에만 몰두한다’, ‘동성애를 지지한다’ 는 등등의 성토품들은 그야말로 사실무근이다. 준비위원회는 “WCC 바로알기 문서”를 작성하여 올바른 설명을 전하고 있다. WCC는



성경의 권위에 굳건히 서서 대부분의 문서는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할 때 성경을 인용하여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러시아 정교회)가 살아남도록 도운 세계교회들의 연대운동, 인종철폐운동과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을 용공세력으로 보면서 그들이 지원하는 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매도했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WCC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취한 적이 없다.

우리는 WCC에 대한 진실과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WCC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일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 축복의 기회에 한국교회는 WCC의 신앙고백과 다양성 속의 일치와 선교비전에 대한 복음 선포와 신앙의 증언을 들을 수 있어야하고, 21세기에 성숙한 한국교회상 확립에 관심을 모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역동성과 감동, 문화적 교류, 미래의 도전을 향한 포용성, 개방성, 다양성을 나누고 경험하는 자리로, 한국교회사에 새 역사로 자리매김 되도록 생명이 충만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총회가 되기를 기원해야 한다. 이렇게 기대하는 부산총회를 마치면,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는다. 



낮은 땅의 어머니

문순태 지음 / 광주YWCA 소심당 조아라 기념사업회 / 2013년 7월 8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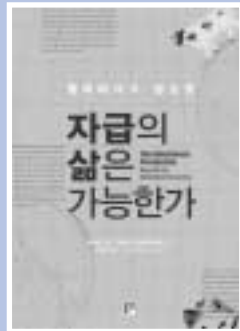
소심당 조아라 선생 10주기를 기념해 소설가 문순태 씨가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자전적 실명소설 『낮은 땅의 어머니』를 출간하였다. 조아라 선생의 희수 축하모임에서 시작하여 ‘계명여사’와 ‘성빈여사’ 설립한 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비밀결사대 ‘백청단’을 이끌어 항일운동에 나섰던 일, 5·18 광주항쟁 때 내란음모죄로 옥고를 치르고, 유동회관 건립을 위해 국내는 물론 서독과 미국에서 모금활동을 했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아라 선생의 일대기인 『낮은 땅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야기가 그 중심에 흐르고 있다.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에바 일루즈 지음 / 김희상 옮김 / 들베개 / 2013년 6월 24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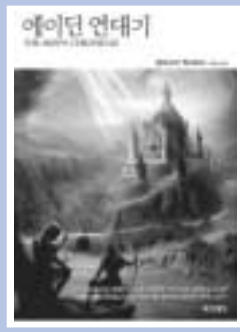
여성 사회학자이자 감정사회학의 대가인 에바 일루즈가 소비자본주의로 기울어진 현대사회가 결국 그 구성원들이 지닌 감정의 생산과 변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진단하고, ‘현대’라는 사회의 풍경을 감정의 ‘상품화’ 혹은 ‘자본화’라는 코드로 읽어냈다. 현대인은 사랑을 하면서 혹은 사랑을 끝내면서 아파야만 하는지를 사회라는 전체 맥락에서, 그리고 역사 변천과정 속에서 사랑이 보유했던 이중적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되묻는다. 더불어 사랑이 왜 ‘심리학적’ 치유의 대상으로 퇴화했는지, 어쩌서 사랑은 특히 ‘여성’을 약자로 만들었는지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며 ‘이성에 혹은 이성관계의 밑바탕’을 폭로한다.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힐러리에게 암소를

마리아 미즈 · 베로니카 벤홀트-툼젠 지음 / 꿈지모(꿈꾸는 지렁이들의 모임) 옮김 / 동연 / 2013년 7월 22일 출간

독일의 자급이론과 실천연구소의 마리아 미즈와 베로니카 벤홀트-툼젠은 에코페미니스트이다. 그들은 대안 경제 시스템을 창안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자급 경제’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강력한 부계사회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자연과 여성, 제3세계를 수탈하고 억압하여 부를 축적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에코페미니스트들에게 자본주의는 자연과 여성과 약자를 짓밟고 배를 불리는 극악한 시스템이자 절대적으로 탈출해야 할 경제 체제이다. 저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임금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할 줄 아는 기술을 익혀야 함을 역설한다.



에이딘 연대기

알리스터 맥그라스 지음 / 최종훈 옮김 / 포이에마 / 2013년 6월 25일 출간

이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소설은 낮은 세계와 현실을 오가며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삶을 오롯이 알려주는 모험 가득한 이야기다. 악의 세력이 굴복하고 정의를 잃어버린 나라의 ‘구원자’로 뜻하지 않게 발 딛게 된 주인공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전달한다. 성경 속 메시지를 모티프로 사용해 선과 악의 대결, 비유와 상징, 다양한 에피소드 속 사상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달마저 뜨지 않는 캄캄한 밤, 낮설고도 매혹적인 세계 에이딘으로 빨리 들어간 피터와 줄리아 오누이는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과 구원자를 기다려 온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뜻하지 않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해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진다.

자족을 배우라

글 | 김기석 (청파감리교회 담임 목사)

디모데전서 6:6~10


교회는 자체 확장을 위해 힘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평안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에 두고 갖고 계신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품고 있었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저마다의 생명의 몫을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의 뜻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10)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을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인간관계도 파편화되고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질 때 평안이 온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가든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안식 없음, 뿌리뽑힘’이 삶의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위기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제는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자신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의 가능성’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원전을 늘려나가고 있다. 정부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삶의 방식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중 ‘절제’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삶의 구조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평화와 생명을 말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려는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다.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정신의 현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변영신학을 추구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해 애썼는데 예수정신이 죽은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정말 풍요를 누리는 그곳에서 예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다.

YWCA가 한국사회에 해야 할 이야기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행복해질 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경쟁, 효율이 숭상되는 시대에서 경쟁이 아닌 협동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기독교는 ‘더’의 종교였으나 이제는 ‘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 내 이웃과 하나님의 생명을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YWCA는 평화와 생명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유로워져 그 공간이 이웃, 하나님이 거니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생명을 진작시키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원한다. 

연합회 소식

7월 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7월 1일 오전 7시 30분 월례아침기도회를 열었다. '자족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YWCA 생명운동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필레 선생 리더십 연구발표회



김필레 선생 리더십 연구발표회가 7월 1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정신여중 내 김마리아 회관에서 열렸다.

(사)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고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번 연구발표회는 김필레 선생 30주기 추모예배 후 시작되었다. 박혜경 교수(대만 장영대학교)가 '김필레 선생 연구-페미니즘 교육 형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서원석 부회장(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의 '광산 김씨 문중의 역할과 역사적 기여', 박은실 국장(연합회 운동국)의 '이 땅의 딸들과 나누는 희망 이야기-김필레 선생의 교육을 통한 변화를 희망하며-'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이날 연구발표회에는 정신여중고와 YWCA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 발족, 정신여중과 한국YWCA 설립자이신(고) 김필레 선생이 남긴 업적을 후대에 알리므로써 김필레 선생의 신앙과 박애에 기초한 정신을 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YWCA,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서 전국사무총장 47명, 연합회 실무자 등 총 52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완상 박사(전 한국적십자사 총재)의 '남북갈등과 평화'를 주제로 한 강연 후 경영 가이드라인 검토와 2014~2015 운동정책 제언, 사무총장 성과고청 결과보고중심의 사무총장 리더십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페차쿠차 방식의 토크콘서트를 진행, 사무총장 간의 소통과 깊은 유대감 형성을 돕기도 하였다.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7월 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YWCA 여성의 일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27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의 '비전선포'가 있었다.(자세한 내용 P.6~)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며 국립여성사전시관 기획전시관에서 YWCA 기획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마련한 것으로 YWCA가 '여성 직업의 변천사'를 주제로 공동협력전시를 하는 것이다. 7월 3일 국립여성사전시관 기획전시관에서 전시오픈식이 열렸으며 전시는 10월 31일까지이다.

더 숲 (The SUP : Self Upgrade Project) 멘토 교육

6월 21일 연합회 강당에서 The SUP 멘토 교육이 있었다. 강교자 직전회장의 Y멘토링과 중보



기도', 김은경 팀장(연합회 아카데미팀)의 'Y멘토링과 카다리학교', 주영아 교수(한국상대대학원대학교)의 '멘토링과 상담'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더 숲(The SUP)'은 자기 계발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Y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10년간 100명의 YWCA 여성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젝트다. 이날 멘토 교육에는 멘토와 실무자 총 31명이 참석하였다.

YWCA 탈핵실천에너지운동 캠페인 및 사진전



7월 1일 연합회 회관 앞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과 사진전'을 열었다. 연합회 1층 로비에서 밀양송전탑공사 강행에 저항하는 밀양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및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수급 정책의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7월 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탈핵희망문화제 '우리가 밀양이다'에 참석하였다. YWCA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가 주최한 문화제였다. (자세한 내용 P.8~)

돌봄협동조합 활성화방안 정책 토론회

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7월 2일 연합회 강당에서 '돌봄협동조합 활성화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협동조합주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총 3개의 발제가 이루어졌는데, 윤정향 박사(돌봄과살림팀 위원)가 '돌봄협동조합 활성화 과제'에 대한 주제발제를, 최영미 대표(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협동조합을 통한 가사서비스 공급 방안'에 대한 검토)로, 김차연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돌봄서비스 안착화를 위한 법적과제'를 각각 사례발제 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협동조합제정 이후 12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시장자본주의의 대안경제로 떠오르는 협동조합이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어떠한 현황과 한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YWCA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이후 돌봄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개선안 마련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YWCA 동아시아 젊은 여성 평화포럼



7월 2일부터 5일까지 YWCA 동아시아 젊은 여성 평화포럼이 열렸다. 홍콩YWCA 리더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홍콩Y 참가자 36명이 한국YWCA를 방문하였다. (자세한 내용 P.26~)

YWCA어린이집 교사 연수

6월 28일 YWCA버들캠핑장에서 YWCA어린이집 신입교사연수가 있었다. 이번 연수는



YWCA정체성과 비전, 유아생태교육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 교육(임희옥 실행위원), YWCA와 어린이집 교사(박은실 연합회 국장), 유아생태교육 접근(최형선 실행위원)의 강의와 조별 토론, 원장연구모임으로 진행되었다. 어린이집 교사, 원장, 연합회 실무자 등 52명이 참석하였다.

제3차 YWCA 생명포럼

제3차 YWCA생명포럼이 7월 11일 문학의 집 서울에서 열렸다. '일상의 생명감수성, 놀기'란 주제로 구미정 교수(송실대)의 주제강연, 조혜영 강사(문화감수성훈련)의 소통과 나눔을 위한 놀이 진행이 있었다. 이외에도 생명 애찬식, 생명 노래 함께 부르기, 생명세상 기원출 엘름댄스 추기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내용 P.12~)

모금전략수립 3차 워크숍

세 번째 모금전략수립 워크숍이 7월 18일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고양, 부천, 성남, 안산, 파주Y 회장과 이사, 실무자 그리고 연합회 북한어린이집기사업단 신희운 부회장과 실무자가 참석하였고 (주)도움과 나눔의 이원규 부대표와 배은옥 이사가 강사로 함께 하였다. (자세한 내용 P.10~)

2013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7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3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구상한다-가 열렸다. 개회예배, 정창수 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의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강연, 국방·외교 분과, 경제정의 분과의 분과모임 및 토론이 있었다. 에큐메니칼 행동

의 날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이 주최한다.

YWCA연합회 실행위원 연수



연합회는 7월 4일 실행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실행위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한국YWCA 실행위원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조은영 복지사업단 이사)'을 통해 실행위원의 역할과 한국YWCA의 비전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15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준비를 위한 제1차 사전모임

제15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 제1차 사전모임이 7월 23일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탈핵과 에너지 정의'에 대한 강의(하승수 변호사), 분과별 역할 나눔이 있었다. 이번 모임에는 총 14명의 한국Y 참가자가 참석하였다. 제2차 사전모임은 8월 5일 진행되며, 제15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이다.

다래교실 제2차 교사교육

다래교실 제2차 교사교육이 7월 24일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다래교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리더십 강의와 독서지도 교안 작성 강의가 있었다. 다래교실 교사, 실무자 등 총 44명이 참석하였다.

등 정
• 유덕순 대전Y 사무총장 취임 (2013. 7. 1)

회원 YWCA 소식

북부

서울YWCA 박서영 간사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식



6월 21일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김용수 목사(반석교회)의 말씀, 경과보고, 인사말, 근속강사 시상, 축하공연이 있었다.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한국 최초 여성인력개발센터로 1993년 7월 세워졌다. 일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직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2013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서울Y는 6월 22일, 29일 2013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진행하였다. 105쌍의 신혼부부들은 소시오드라마와 의사소통 교육을 받으며 갈등을 이해하고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여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프로그램은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인천YWCA 이한나 간사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후원행사

인천환경원탁회의가 주관(상임대표 김용옥 인천Y 회장)하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후원행사가 7월 16일 인천Y에서 열렸다. 인천Y는 기금마련을 위해 18개의 교육기관에 교육 및 저금통 모금 활동을 담당했다. 9월에는 인천시민 50명이 함께 몽골 바양노르솜을 방문하여 식림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후원 행사는 몽골에 조림 사업을 추진해 황사를 줄이고 기후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위원의 날

인천Y는 7월 9일 인천Y 강당에서 위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남상인 사무총장의 YWCA운동 소개, 김용옥 회장의 리더십 특강, 함성근 위원의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1개 위원회, 70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Y운동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YWCA 김미란 간사

제25회 회원대회



강릉Y는 강릉실내체육관에서 제25회 회원대회를 개최하였다. 1부 예배, 2부 다양한 체험활동, 3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날 173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다문화 가정 가족나들이

강릉Y는 6월 17일 솔향수목원에서 다문화가정 가족나들이 시간을 가졌다.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레크레이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동해YWCA 김정은 간사

청소년 어울마당

동해Y는 6월 8일 묵호동 논골3길에서 등대까지 이르는 길에

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날개를 달다'를 진행하였다. 논골3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전문 강사진과 함께 나와 우리에게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댄스경연대회도 열었다. 본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

여성 인권 아카데미 개강식



동해Y는 6월 14일 제4회 여성인권아카데미- 여성이 만드는 평화세상 개강식을 가졌다. 본 아카데미는 평화통일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여성들이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및 시민대상 평화교육을 통해 남북평화통일 의식함양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

동해Y는 6월 24일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을 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본 돌봄센터는 동해Y가 미래세대를 함께 키운다는 신념으로, 농산어촌지역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해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를 통해 보육사각지대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을 집중하여 맞벌이부부의 육아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다.

속초YWCA 백수미 간사

EM환경교육



속초Y는 7월 5일 다문화가정여성들을 위한 'EM이 환경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EM환경교육과 EM 흙공 던지기를 하였다.

원주YWCA 김병남 간사

애들아 함께 밥먹자

원주Y는 6월 17일 관설초등학교에서 애들아 함께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사 및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주먹밥과 미숫가루를 나누어주며 학생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북한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려 분유보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성폭력 예방 인형극



원주Y는 6월 중 어린이집 25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인형극 '안돼요 안돼!'를 진행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인형극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춘천YWCA 진소정 간사

EM발효액 무료 배포



춘천Y는 7월 4일 강원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도내 학교 다섯 곳에 EM발효액 5,000개를 무료 배포하였다. 2012년 (주)하

이원리조트 후원으로 설치된 EM발효기를 통해 만든 EM발효액 배포를 통하여 합성세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5월 28일에는 강릉Y, 속초Y, 실무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EM생활환경 심화과정을, 6월 17일에는 EM생활환경 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경기

부천YWCA

이지원 간사

부천시민을 위한 환경한마당 축제



부천Y는 6월 8일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부천환경한마당 축제에 참여하였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출범식이 있었고, 공정무역 커피, 탈핵홍보 사진전시, 도시농업, 에너지절감 초록부채 만들기 등 각 시민단체별로 부스를 운영하였다. 부천Y는 유용미생물 EM을 체험해보고 무료 배포하는 EM 부스를 운영하였다. 참여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환경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다선품' 프로그램



수원Y는 5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육아, 다(다문화)선(선주민)품(엄마품)' 프로그램을 차례 실시했다. 예비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 20여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2회 육아건강관리, 베이비맛사지, 커피를 활용한 힐링프로그램, 유아 성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다선품은 이유식과 소품 만들기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6회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YWCA-YMCA 합동예배 및 성서특강

안산Y는 7월 17일 안산YMCA 강당에서 YWCA-YMCA 합동예배 및 성서특강을 가졌다. 안산Y는 안산YMCA와 함께 매월 진광호 목사(샘골교회)를 모시고 에큐메니칼운동의 방향 찾기에 대한 내용으로 성서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사 및 실무자, 회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원한마음 체육대회



안산Y는 7월 13일 안산강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예배 이후, 회원증모운동 결과 발표와 함께 우수 증모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고, 이어서 4개 팀으로 나누어 장애물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한 달여간의 회원증모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단합하는 기회가 되었다.

안양YWCA

김희정 간사

2013년 회원대회

안양Y는 7월 2일 안양일심교회에서 회원대회를 가졌다. 김홍석 목사의 '달려가는 사람들' 이란 주제 말씀에 이어 공동체놀이 진행하였다. 회원 80여명이 참여하여 안양Y 단합의 시



간을 가졌다.

양성평등한 부부학교

안양Y는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6월 22일 '아이플러스 행복더하기 양성평등 부부학교'를 열었다. 정진주 박사의 '함께 가는 너와 나'라는 주제로 특강 이후 부부집단 상담을 진행하였다. 7월 6일에는 '아빠표 영양간식 만들기'와 '아빠랑 놀이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안양Y는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북한이탈여성 정착도우미 양성대학

의정부Y는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이탈여성 '꽃꽃' 정착도우미 양성대학을 진행하였다. 의정부Y는 '꽃꽃(북한이탈 여성을 칭함) 정착도우미'를 양성하여 초기 탈북여성의 조기 적응을 지원한다. 13명이 본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7월 16일에는 '꽃꽃' 도우미와 '꽃꽃' 새내기의 결연식이 있었다.

평택YWCA

정혜근 간사

에너지절약과 EM환경교육



평택Y는 7월 3일, 10일에는 평성노인복지관 어르신과 평성보건복지센터 자원봉사자를 위한 에너지 절약과 EM활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EM을 활용하여 환경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 보았으며 EM활성액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늘해랑 학교

평택Y는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늘해랑 학교'를 연다. 늘해랑 학교는 특수교육대상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방향 중 지속적인 보육·교육 제공 및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총 12명의 청소년이 참가한다.

중부

대전YWCA

강은혜 부장

대전Y 사무총장 이·취임식



대전Y는 7월 1일 제13대 오현숙 사무총장 제14대 유덕순 사무총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그동안 대전Y 발전을 위해 헌신한 오현숙 사무총장 이임과, 신임 유덕순 사무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자원지도자 및 회원 등 105명이 참석하였다.

제18회 대전여성포럼

대전Y는 여성주권을 기념하여 7월 4일 제18회 대전여성포럼을 진행하였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갑숙(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가 발표를 하였고 권춘식 사무관(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임정규 사무국장(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신희정 교수(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영아 소장(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이날 포럼에 대전지

방경찰청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탈핵학교

청주Y는 6월 12일 2013년 탈핵학교를 개강하였다. 총 4회기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6월 28일에는 서울 성대골어린이도서관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청주YWCA는 시민들과 함께 왜 탈핵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탈핵학교를 시작으로 청주시민들과 함께 탈핵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청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제48주년 창립기념예배와 회원증모시상식



청주Y는 7월 11일 제48주년 창립기념예배 및 회원증모시상식을 진행하였다. 김옥순 회원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예배에 송주형 목사(청주CCC 대표)가 '희망의 되어주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5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회원증모운동에 참여한 조원들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YWCA 김애영 부장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경비원 과정



충주Y는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경비원 과정을 진행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총 19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여 4명이 조기취업 되었으며 15명이 수료하였다. 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산YWCA 김화선 간사

씽크머니 데이

논산Y 7월 20일 금융교육을 받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씽크머니 데이를 진행하였다. 씽크머니 데이는 직업체험특강 및 직업체험활동을 시작으로 경제주사위, 경제골든벨, 시장체험 등 다양한 금융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논산Y는 6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17차시 교육으로 방과후 교실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천안Y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6월 29일 천안시내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성정동 롯데마트 인근 유해업소 40여 곳에 찾아가 점검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업주들에게 본 활동을 알리고 올바른 청소년보호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2013년 회원증모운동 중간보고대회

천안Y는 6월 25일 2013년 회원증모운동 중간보고대회를 가졌다. 올해는 48%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날 문진숙 부회장을 비롯하여 본부, 부서별 사례발표가 있었다.

서부

광주YWCA 김해정 간사

故 소심당 조아라 제10주기 추모예배와 출판기념회

광주Y는 7월 8일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故 소심당 조아라 제10주기 추모예배 및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조아라 타계 10주기를 기념해 소설가 문순태 씨가 쓴 자전적 실명소설「낮은 땅의 어머니」를 출간했다. '계명여사'와 '성빈여사' 설립, 1929년 비밀결사대 '백청단'을 이끌어 항일운동에 나선 일, 5·18 광주항쟁 때 내란음모죄로 옥고를 치른 일 등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생명평화예배



광주Y는 6월 30일 무진교회에서 광주Y를 비롯한 8개 단체 관계자 및 무진교회 성도들과 '핵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평화예배'를 드렸다. 김용성 목사(민들레교회)의 '평화의 세상을 여는 교회'라는 말씀과 핵없는 세상과 대안에너지 영상 상영이 있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절제하는 삶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남원YWCA 박경은 간사

YPM(YWCA PEACE MAKER) 독도캠페인

남원Y Y-틴 동아리 YPM(YWCA PEACE MAKER)은 7월 20일 독도캠페인을 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Y-틴이 남원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Y-틴이 모든 것을 담당하였다.

여성그린교실(EM교육)

남원Y는 7월 1일 여성그린교실을 진행하였다. EM교육을 통



하여 남원시 여성들에게 건강한 환경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EM에 대한 정의, 생활 속에서 사용 방법, EM을 써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전주YWCA 김은진 부장

여성주간기념 활동



전주Y는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7월 5일 전주바울교회에서 '나눔으로 평화특강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이날 북한이탈주민화가가 '통일된 미래사회를 위한 남북한 이해하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나의 정착이야기 및 특별공연'의 장을 마련하여 통일된 미래사회 준비하며 나눔으로 평화의 사회를 이루고자 하였다.

장년(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전주Y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13 장년(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으로 간병돌보미 교육을 진행하였다. 준·고령자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고 집중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취업활동 희망자 2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목포 YWCA

곽수현 부장

평화캠페인



목포Y는 6월 22일 평화광장에서 목포Y 실무자와 Y-틴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지역 여성단체연대와 함께 평화 캠페인과 문화마당을 진행하였다. 차별과 폭력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함 을 목적으로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다.

제11회 YWCA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우렁이 날기

목포Y는 6월 20일 진도군 만큼면 만큼친농화와 YWCA 이 사,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우렁이 날기를 진행하였다. 올해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우 령이 날기와 모심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친환경 농 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으며,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여수 YWCA

박진희 간사

제18회 여성주간기념 캠페인

여수Y는 제18회 여성주간의 날을 맞아 7월 5일 '여성이 행복 하고 안전한 여수' 라는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참가자들은 4대 사회악 근절 구호가 적힌 피켓과 우산을 들 고 다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여 수Y와 부속시설(여성상담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이주여성쉼터, 초록어린이지역이동센터,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중장기청소년쉼터, 일시청소년쉼터), 경찰서, 교 육청, (사)안실련, 여수여성쉼터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여수시청소년일시보호쉼터 개소

여수Y는 7월 10일 여수시청소년일시보호쉼터 개소식을 가졌 다. 봉산동 245-10번지 2층에 마련된 쉼터는 여수시로부터 '여수시 청소년 일시보호 쉼터' 사업위탁을 받아 운영된다. 청 소년일시보호쉼터는 연중 이용 가능하며 7일 이내 가출 및 방 황 등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일시보호와 함께 상담 및 진 로지도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을 유 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여수시 관계자 및 시의원,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주 YWCA

장진우 간사

여성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협약식

제주Y는 7월 5일 '여성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협약식 및 캠페 인' 을 진행하였다. 제주 칠성로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과 협약서 전달식을 갖고 유모차 기증식, 공중화장실 입구 CCTV 및 화장실 내부 기저귀 교환대 시설물 확인, 여성친화 도시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하였다. 제주Y는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후속작업을 진행하여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여성 친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3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제주Y 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 6월 17일 제주중소기업종합지 원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 장애인 · 중고령자 등 취업애로계 층을 포함한 일반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2013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를 개최했다. 이 날은 현장면 접채용 외에도 취업카운슬링도 진행하였다.

동부

대구 YWCA

김세형 차장

대구Y 노인복지센터 '폭염기 대비 독거노인 지원사업'

대구Y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요보 호 독거 어르신들이 폭염기를 잘 극복하도록 대구시청, 달서 구청, 달서구내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폭염극복용품 을 지급하였다. 또한 7,8월 독거어르신들에게 폭염대비 교육 과 방문, 안부전화 등 안전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건강히 지내시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달서구청소년쉼터 'KT&G서대구지점과 협약식과 장학금 전달식'



대구Y 달서구청소년쉼터와 KT&G 서대구지점은 위기 상 황 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며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인으 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한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퇴소생의 학비로 쓰이도록 하였다.

부산 YWCA

박지영 간사

회원모집운동 발대식

부산Y는 6월 5일 회원모집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YWCA 정 체성과 회원운동을 위한 이천진 목사의 강의, 회원유지 및 관 리를 위한 명진숙 국장(한국YWCA연합회)의 특강, 위촉장 수 여, 2013년 회원모집운동을 위한 단합 시간을 가졌다.

새터민지원센터 이전 및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토론회



부산Y 새터민지원센터(하나센터)가 6월 13일 서면으로 이전 하였다. 19일에는 이전 개소 후 부산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토론회' 를 열 었다. 통일부 장관 및 관계자, 이탈주민이 참석하였다.

울산 YWCA

이민정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울산Y는 7월 9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을 개최하였 다. 이번 워크숍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 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열었다. 청 소 년유관기관 관계자 및 감시단원 등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항 YWCA

황혜민 간사

결혼이민자여성 소비자교육

포항Y는 6월 20일과 7월 4일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베트남 여성 11명과 필리핀 여성 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소비자법에 대한 내용 강의를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소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거제 YWCA

김의향 팀장

싱크머니교육



거제Y는 6월 14일 부터 7월 19일까지 배우고 체험하는 어린 이 금융교육 싱크머니를 실시하였다. 아주초등학교 5학년 140명 어린이들에 올바른 경제관과 신용의식을 심어 주는 교 육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와 나눔을 배 울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교육을 통해 작은 것도 아껴 쓰고 나누어주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여성취업페스티벌

김해Y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2일 김해운동장에서 여성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채용상담관, 창업정보관, 도전직 업관, 이벤트관으로 구성되었고, 구인구직상담 및 개인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날 500여명이 참여하였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마을지킴이단 발대식
 사천Y는 6월 17일 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마을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졌다. 마을지킴이단은 성범죄예방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발대식에 이어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아동학대예방법, 성폭력피해자 지원 절차, 마을지킴이단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향후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제6회 여성들의 이야기터
 양산Y는 6월 21일 '여성정책 제안을 위한 나의 주장'이라는 주제로 '제6회 여성들의 이야기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여성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10여명의 양산지역 여성들이 발언대에 올라 당당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쳤다. 이날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걷기대회



양산Y는 6월 14일 동산장성길에서 '환경사랑-양산둘레길 걷기대회'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퍼포먼스, 시낭송, 생활 속의 녹색생활 실천 구호 외치기, 자연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리본 달기, 환경사랑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이날 걷기대회를 통하여 지역생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진주YWCA 김태진 간사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및 목회자 사모초청 간담회
 진주Y는 6월 17일 창립35주년 기념행사와 진주시 각 교회의 사모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개회예배, YWCA 소개, 우쿨렐레 축하공연이 있었다. 기독교여성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의논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YWCA 황은진 간사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창원Y는 6월 27일 창립 2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강승구 목사(남산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앞으로도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운동하는 창원Y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4대 중증질환부터 의료비 걱정,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 꼭 필요한 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크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수술, 약약품, 검사 등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
- 가격이 비싼 최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일부 비용 지원



▶ 연도별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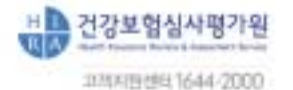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약약품			·항암제 등 고가 약약품 ·백기염상 등의 질환을 거쳐 소차적으로 보험 적용	
검사 수술	초음파검사 (10만 원)	영상검사 (5만 원)	병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비용	·검사후진기 검사 등 ·교육상담료
치료 재료			·심장·뇌수술 재료 ·방위 연계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 재원은 건강보험 적립금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달
- 건강보험료는 불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 수준에서 관리
-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 : 3.04% (14년 인상률 : 1.7%)

●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4대 중증질환 이외 다른 질환의 건강보험 혜택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 울 02.3705.6000	울 산 052.247.3520	천 안 041.575.0961
강 릉 033.651.1385	대 구 053.652.0070	서 천 041.951.6400	원 주 033.742.6090	청 주 043.265.3700
거 제 055.682.4950	대 전 042.254.3035	성 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 천 033.254.4878
경 주 054.772.8141	동 해 033.531.3007	세 종 041.865.0872	익 산 063.857.8910	충 주 043.848.3240
고 양 031.919.4040	마	속 초 033.635.3523	인 천 032.424.0524	타
광 명 02.895.1966	마 산 055.246.8746	수 원 031.252.5111	자	통 영 055.646.2547
광 양 061.762.0012	목 포 061.242.1611	순 천 061.744.7990	전 주 063.224.5501	파
광 주 062.524.3511	바	아	제 주 064.711.8322	파 주 031.945.5998
김 해 055.332.6000	부 산 051.441.2221	안 동 054.854.5482	제 천 043.646.6009	평 택 031.651.7701
나	부 천 032.668.9700	안 산 031.483.6536	진 주 055.755.3463	포 향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 양 031.455.2700	진 해 055.542.0020	하
남 원 063.632.7002	사 천 055.833.2344	양 산 055.367.1144	차	하 남 031.793.7771
논 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 수 061.654.2161	창 원 055.283.9488	